지역 유망 예술학도 무대 선보인다

전주문화재단, 차세대 공연예술인 발굴 프로젝트 '라이징스타 시리즈'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16일부터 차세대 공연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 '2025 라이징스타 시리즈'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한벽문화관이 주관, 시즌4를 맞아 지역의 유망 예술학도들이 무대에 올라 재능과 열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전주대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전북대학교가 차례로 참여해 16~30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음악학과와 한국음악과를 중심으로 클래식부터 전통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전주문화재단과 세 교육기관은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선발된 19명의 학생들은 사전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저명한 지휘자와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며 예술적 역량을 강화해왔다.

첫 무대는 16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재학생 김미나(피아노), 문예은(바이올린), 송승연(피아노), 양소현(피아노), 최다현(피아노), 최세빈(피아노), 최율지(바이올린)가 클래식 무대를 꾸민다.

'2025 라이징스타 시리즈' 포스터

이어 23일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학생 박승우(피리), 이지은(판소리), 이하솜(해금), 이하음(피리), 차유찬(해금)이 전통음악 무대를 선보이며,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재학생 박유빈(판소리), 박정민(가야금), 송채은(아쟁), 양태영(피리), 이유민(가야금), 장소희(해금), 최진(대금)이 판소리와 기악 연주로 대미를 장식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라이징스타 시리즈는 지역 차세대 예술인이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자, 관객들에게는 신진 인재들의 무대를 가장 먼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전주의 미래 공연예술을 이끌 인재들이 더욱 주목받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라이징스타 시리즈(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는 전석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공연일정은 전주문화재단(www.jjcf.or.kr)과 전주한벽문화관(www.jt.or.kr) 누리집 종합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운영팀(063-280-70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평등ON, 모두가 빛나는 세상'

전북여성가족재단, 17일 '제14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일원에서 '제14회 젠더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평등ON,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도내 여성·가족·대학·기업·종교 등 28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관해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재단 내부에서 진행해 온 행사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평화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지역민과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열린 성평등 축제로 마련했다.

축제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28개 기관의 홍보부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게임, 와플만들기, 인생네컷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통해 '젠더'의 의미와 성평등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15개 플리마켓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혼숙려캠프 호랑이 상담사'로 잘 알려진 이호선 교수를 초청해 '가족소통 레벨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달빛 아래 감성 포차거리' 월광포차 운영

남원시는 하반기 월광포차를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한루원 경외상가 일원에서 △지역예술인 공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행운의 95 노래방) △감성 먹거리존이 결합된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로 꾸며 진행한다.

하반기 월광포차는 '달빛 아래 감성 포차거리'를 주제로, 음악과 먹거리, 그리고 방문객 참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운영된다.

행사는 남원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 동호회, 그리고 초청가수가 함께하는 명품 스테이지로 꾸며지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행운의 95 노래방'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무대 형식으로 진행되고, 참가비는 장학금 등 지역사회 환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 대표 먹거리와 포차형 부스를 결합한 '감성 먹거리존 & 포차거리'가 운영되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월 4일 가수 김장훈의 무대에는 약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호응을, 10월 11일에는 박미경·김민선, 10월 25일에는 박혜경·더원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가 참여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려인 역사' 무형유산으로 승화

국립무형유산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재외동포 고려인 초청연수·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오는 15~25일 전승·얼쑤마루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고려인을 초청, 무형유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국립무형유산원에 따르면 무형유산 전승과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재외동포 교육사업을 진행, 무형유산 강사 현지 파견과 초청연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거주 재외동포 고려인에게 농악, 학연화대합설무,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등 무형유산 예능 종목을 전수해왔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소속 예술단의 지도자급 각 10명(총 20명)이 참여,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 종목을 총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선보이는 공연도 진행된다. 18~19일에는 안산시의 '고려아리랑' 행사와 광주광역시의 '고려인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농악과 가야금산조 및 병창, 태평무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초청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로 25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무형유산축전'에서 초청공연 「환대」가 펼쳐진다. 이는 고려인의 발자취와 고난의 역사를 무형유산을 통해 승화한 공연으로, 임실필봉농악, 가야금산조 및 병창, 학연화대합설무,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안산 '고려아리랑' :031-493-7056, 광주 '고려인의 날' : 062-943-8930, 국립무형유산원 '환대' : 063-280-147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 개최

부안군은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2025년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풍감래(鼓風甘來)", 즉 "북소리와 풍악으로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갈고닦은 부안군립농악단의 예술성과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정기발표회에는 32명의 단원이 참여해 부안농악 특유의 흥과 멋, 공동체적 신명을 담은 부안농악판굿과 개인 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연희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 박물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호응'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박물관, 지역 속으로'와 박물관 수장고 개방 프로그램 '열려라 수장고!'를 운영중이다.

'박물관, 지역 속으로'는 박물관의 유물을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고문서 스토리텔링, 전통 인쇄문화 체험, 유물 퍼즐, 토기 설명, 수막새 맞추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박물관 수장고를 지역 주민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는 '열려라 수장고!'도 이어진다.

'열려라 수장고!'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차당 15명씩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